여수수협 초매식 "풍어 기원합니다"

여수수협 중도매인들이 2일 새벽 어업인의 안녕과 수산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새해 초매식을 갖고 첫 위판을 하고 있다. 지난해 여수지역 수산물 위판량은 4만807t(위판액 1686억원)으로 전년보다 1500여t 늘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청정 구례 '산나물 주식회사' 만든다

고사리·다래순 등 나물류 생산·가공 시스템 구축…지역 브랜드 실용화 추진

구례군이 고사리·다래순 등 산나물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구례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농촌지도자 회원과 생활개선회원, 4H회원, 나물재배농가 및 유통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백세산나물 주식회사' 설립 사업성 평가 연구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생산농가 소득증대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백세산나물 기업화와 규모화 추진을 비롯해 ▲생산·가공·유통 통합시스템 구축 ▲주식회사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적정성 가능여부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리산에라는 청정의 이미지속에 농가최초의 나물 주식회사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킨다면 소비자들에게 한발 다가갈 수 있는 브랜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아직 나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품이 없다는 점과 주 타깃층이 될 수 있는 주부와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요리법 등이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홍보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군은 백세 산나물산업 육성에 5개 사업 4억2300만원을 집중 투입해 10대 산나물 기반구축과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고사리, 다래순 등 산나물류는 웰빙 바람을 타고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새롭고 신선한 먹거리로 좀더 빠르게 다가간다면 지역농가 소득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광양 와우·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시화

광양 와우지구와 광영·의암지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2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 와우지구와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이 지난 23일 제11회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와 개발계획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중마동 와우마을 일원 69만7357㎡와 광영동 및 옥곡면 의암마을 일원 51만7360㎡을 각각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조사설계 및 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해 왔다.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와우지구는 '국도2호선 북측 녹지자연도 7등급 지역 구역계 제척과 준주거용지의 위치 조정 및 면적을 축소' 하고, 광영·의암지구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 용지의 위치 조정 및 면적 축소, 준공업지역 경계부 완충녹지 재검토' 등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시는 앞으로 세부 조치계획을 작성한 후 전남도 관계부서에 협의해 이달 하순께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및 개발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행정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올 상반기 중으로 도시개발구역내 건축물, 수목 등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에 착수하는 한편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등 나머지 행정절차를 오는 9월께까지 이행하고 12월께에 공사발주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 와우지구 및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면 도시미관 개선과 713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정주기반이 구축돼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여수 친환경 미생물 생산시설 준공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을 돕는 유용 미생물 생산시설이 여수시 농업기술센터내에 들어섰다.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은 171㎡(51평) 규모로 3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지난 7월에 착공해 12월에 완공됐다.

주요 시설로는 배양실험실과 제품 포장실, 저장시설, 미생물배양기, 자동포장기 등을 갖췄다.

이에 따라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등의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연간 50t 이상을 생산, 농약사용을 줄여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관내 친환경 인증농가는 무료로, 필요로 하는 여수시민은 1ℓ 당 300원에 보급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앞으로 친환경 농업에 유용한 미생물 생산 공급은 물론 사용요령 등을 교육해 친환경농업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용미생물은 가축의 소화작용, 축사 악취감소·환경개선, 채소·과수 등 농작물의 생육증진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고흥군 마을 응급상황 대비 '생명 도우미제' 운영

고흥군은 각 마을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비, 새해부터 '마을생명 도우미제'를 운영한다.

'마을생명 도우미제'는 노인 인구가 많은 곳에 심혈관 질환 등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각 마을 부녀회장 등 1명씩을 도우미로 지정했다. 모든 농어촌 마을에 도우미를 지정, 운영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군은 최근 16개 읍·면 514개 마을에 지정된 도우미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자동 제세동기 작동법 등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김충석 여수시장

"박람회 성공개최로 글로벌 도약"

박람회 4대 시민운동 정착
교통망 4월까지 새로 구축
세계 4대 미항 건설 추진

"올해는 여수시의 명운이 걸린 운명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김충석 여수시장의 새해포부는 비장하다. 지난 15년간 준비한 세계 박람회의 꿈이 오는 5월이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발판 삼아 '국제해양 관광 레저 스포츠 수도'를 건설해 남해안 선벨트 중심도시로 세계로 웅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임진년 새해 첫날 시무식에서 시정 전반을 박람회 종합 상황실로 전환하고 가능한 모든 상황별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신속 대응하자고 역설했다.

무엇보다도 김 시장은 교통난 해소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선 박람회장으로 진입하는 시내 교통망을 오는 4월까지 구축하고 시내 교통난 해소를 위해 환승 주차장과 엑스포 터미널을 만들고 시내 곳곳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대중 교통체계도 박람회장을 중심으로 개편해 누구나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박람회 기간중 승용차 안타기 범시민운동 전개와 더불어 시내 모든 구간의 시내 버스에 대해 무료 운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교통난 해소는 시스템의 개선에 앞서 시민들의 절대적인 협조와 참여가 성공의 열쇠"라며 "박람회 개최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충분한 연습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시민참여형 박람회를 위해 '엑스포 4대 시민운동'을 정착시키고 55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곳곳에 배치한다는 복안이다.

김 시장은 박람회 성공 개최의 동력을 발판 삼아 올해를 '국제 해양관광레저 스포츠수도 건설' 원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박람회 이후 도시발전 패러다임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오! 여수 2020' 여수시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김 시장은 이 계획을 바탕으로 '세계 4대 미항' 건설을 목표로 국제 해양관광센터 설립과 해양관광 휴양도시 조성사업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김 시장은 여수 엑스포를 계기로 개선된 접근성과관광 인프라를 기반 삼아 '은퇴자 도시'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시의 정주기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세웠다. 올해부터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관내 모든 초·중학교로 확대해 공교육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KTX 개통 시대를 맞아 지역 상권 붕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역세권 개발을 추진해 지역핵심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문화 예술 분야 역시 GS칼텍스 사회공헌 사업으로 건설 중인 '예울마루'가 완공될 경우 지역출신 작가들의 전시 공간을 확보해 제공할 계획이다. 여수 지역 출신 대표 작가로 거론되는 배병우 사진작가, 김정수 극작가, 허영만 화백, 전남 최초 서양화가 김홍식, 천재화가 손상백, 박노식·백일섭 영화배우 등의 전시 공간을 마련해 '문화예술인촌'을 구성할 계획이다.

독도 연구가로 알려진 김 시장은 임진왜란 유적 복원에도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일제 강점기때 단절된 진남관과 통제이공 수군대첩비 사이에 좌수영 다리를 신설해 구국의 혼과 맥을 복원할 계획이다.

이같은 김 시장의 야심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인구 30만명 붕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광양~日 시모노세키 주 3회 운항

광양 비츠호 내일부터

광양~일본 시모노세키간을 운항하는 '광양 비츠호' 운항횟수가 다시 늘어난다.

2일 광양시에 따르면 4일부터 '광양 비츠호'운항횟수를 주 2항차에서 3항차로 증편한다.

'광양 비츠호'의 광양항 출항은 일·수·금요일 오후 8시이며, 시모노세키항에서는 월·목·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출항을 하게 된다.

'광양 비츠호'는 지난해 1월 23일 주 3항차(2항차는 시모노세키, 1항차는 모지)로 취항했으나 3월 11일 발생한 일본 대지진과 원전사태의 여파에 따른 여객영업 부진으로 인해 여름방학기간인 7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를 제외하고는 주 2항차로 감편 운항해왔다.

그동안 주 2항차 운항으로는 다양한 패턴의 여객모집과 화물유치 확대에는 사실상 한계가 직면했으나, 여객수요시장의 점진적인 호전세에 힘입어 최종적으로 광양~시모노세키간 주 3항차 증편 운항을 결정하게 됐다.

주 3항차 운항재개로 4박 5일·5박 6일의 일본 관광상품 출시를 통한 일반단체와 기업연수, 수학여행 유치 등의 여객영업 강화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농수산물을 비롯해 활어차, 특수차량, 중국발 일본행 환적물량 등의 화물유치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광양 비츠호'의 주 3항차 운항재개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2012 광양 월드 아트서커스 페스티벌'과 여수엑스포 기간 중에도 상당한 특수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중에는 일본인 관광객 1만2000명이 선예약돼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